

DECEMBER/2023

Vol.27

EMMANUEL

임마누엘 [보냄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골 20:21



목차

06 보냄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나를 세우는 말씀

나를 세우는 찬양

12 행전 스타일

믿음의 선진들 - 모라비안

시대를 분별하라 - 목장 / 초원지기

선교간증

† 니제르

† 라오스

† 이스라엘

성숙 조력자

† 이수복 목사

† 박혜진 전도사

세례간증

† 신동욱

† 윤경순

목차

30 성경공부 간증

† 여성예배

† 삶공부

34 시대 뛰어넘는 묵상

가정교회의 비전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제안

36 빛과 소금

인터뷰

† 직장인 선교회

† 강찬 찬양 사역자

† 신임 권사 삼행시

청소년 감동캠프

청년부 탐방

목장소개

50 임마누엘 사람들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58 도서부 책 소개



보냄호를 열며

담임목사 칼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19-23

2023년은 우리 교회 '선교의 해'입니다. 4년 주기를 두고 이제 두번째로 진행되는 영혼구원, 성숙, 선교, 성경통독 해의 사이클은 내년을 기점으로 마감할 생각입니다. 4년마다 전교인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함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계속 되겠으나 다른 해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성도 각자의 영적 성숙과,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는 특정 해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년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위임령(마28:18-20)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토를 달고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가정교회 운동의 핵심으로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 왜 그토록 부담스럽기만 하고 사이다 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마음만 드는 것 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며 히브리어로 바꾸면 'shalom'입니다. 보냄 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를 사역했던 조지

모리슨은 이 평강을 가리켜 "넉넉한 자원을 소유한 상태"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절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은행 계좌가 나에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기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평온한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소통과 나눔의 관계, 주님에게는 그것이 있었기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위대한 사명을 올곧게 끝까지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평강, 마르지 않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베이 지역은 물질 문명의 첨단 산업으로 꽃을 피운 지역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다는 고귀한 목적이지만 풍요로와 보이는 이 곳에서도 목마르고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눈'으로 이곳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각 개인의 삶에서, 가정 이 함께, 혹은 목장 단위로 우리 모두가 베이 지역에 위치한 여러 열방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이 한 해를 어떻게 섬길까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백만에 가까운 이 지역 인구 중 37%가 넘는 3백만의 인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미국에는 327개의 언어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215개 언어 그룹이 캘리포니아에 존재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요. 저는 "Pray Globally, Act Locally"라고 바꾸어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베이 지역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평안하십시오.

글 | 박성호 목사

또 다른 주님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내가” 군사된 자로서

빌립보서 2:25 그는(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믿는 사람은 군사인 까닭에 평상시에는 많은 훈련을 말씀읽기와 묵상 그리고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기, 성령님 음성듣기, 그 음성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교전투에 투입되어 전투하기 등. 많은 훈련, 영적전투 그리고 휴식 또 그러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군사의 삶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사인 관계로, 더 강도 높은 끝 없는 훈련을 거듭하며 영적 전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경우에는 마치 매달 1번씩 당회에서 서너 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행동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의 경우는 13년 12달 x 3 시간 씩 거의 468 시간 넘게 공식적인 군사의 훈련을 당회로 부터 받은 셈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당회에 감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군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회를 Retire하는 순간까지는 한명의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회에서 계속하여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뜻을 깨달아

에베소서 3:19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군사의 직분은 주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늘 성령충만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군사인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신발에 있는 그 모래의 불편함, 그 이물질의 아픔을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상대방의 신을 신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것이 성숙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믿음의 성숙도 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회 당회는 당회장 목사님과 14분의 장로님들이 매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관건은, 비록 하나님 앞이지만 15분의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사건, 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생각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성숙도를 가지신 당회원들이 어떻게 박성호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을 내려 가는가 입니다.

흔히들, 어떤 사회이든지 이중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을 그 사회의 Elite라고 합니다. 왜냐면 같은 사물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기에 더 포괄적인,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성숙된 관점에서 이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사회에서도 Bilingual (이중언어)를 한다는 것은 두 문화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더 폭 넓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직업은 이중언어를 쓰는 직원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만의 시각이 아닌 제 주변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는 주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줍니다.

“내가”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을 만나며

요한복음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흔히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정서는 미국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의 그 한국시간의 정서와 관념으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가령 저의 경우는 1986년 미국땅을 밟았기에 1986년 한국정서를, 한국관념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986년의 한국사람 정서와 관념을 가진 한 이방인이 2023년 이 미국땅에서 미국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언어 공간과 한정된 문화의 파노라마입니다. 가령, 집밖의 공간은 미국 문화, 교회는 1986년의 이민 교회 그리고 가정은 결혼을 한 1991년의 한국 언어, 한국 문화 그리고 그 상황이 매일 24시간의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웬만한 Mental이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고정된 정서와 관념으로 세상을, 교회를, 사회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저도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주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다른 상황의, 다른 인생관의, 다른 관념의 파노라마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비록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땅을 밟은 시점이 다르기에 다른 한국 정서와 관념과, 엄밀히는 다른 한국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북가주 노회와의 인연은 13년 전, 장로고시청원과 5년전 투표권을 가진 총대로서의 참석입니다. 그것은 낯선 용어와의 또 다른 세계와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 주종을 이

루시는 목사님들의 세계관 그리고 아무리 질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세세함이 이어지는 회의 방식 등 전혀 다른 면을 추구하면서도, 질서를 중요시 하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북가주노회의 참석은 또 다른 각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많은 파노라마의 시야가 펼쳐져 눈이 따라잡기에도 어려운, 희미한 정체성의 시야에서 또 다른 시각을 주시므로 더 뚜렷한 형상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의 말씀에서처럼, 북가주노회의 참석은 ‘내가’ 라는 주님의 또 다른 시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경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라고 하는, 주님의 눈으로 당회를, 교회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라고 하는 주님의 안경을 쓰기 원합니다.

글 | 박용갑 장로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

"...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6:13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찬양일 것 같습니다. 4분음표로 진행되는 심플한 박자지만, 멜로디에는 냉랭한 마음도 녹일 것 같은 따뜻함이 묻어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3절에 걸쳐 기록한 가사 또한 감동으로 다가와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기까지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저에게 한층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을 때, 제자들의 비난과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시며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자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더라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부찬양팀 인도자의 자리에 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월함은 없어도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제 시간과 재능을 예수님께 그리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2024년이면 3부 예배 찬양을 맡게된지 5년이 됩니다. 여전히 실수와 허점 투성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찬양과 예배로 내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라도 쓰시겠다면 기꺼이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항상 넘치는 은혜를 돌려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해보는 2023년 12월입니다.

글 | 박태욱 (3부 찬양팀)



무명의선교사들, 모라비안

사람들은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때 윌리엄 캐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떠나기 60년 전에 이미 모라비안 선교의 사람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더불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선교 하러 떠나기 150년전에 먼저 선교지로 들어갔던 사람들 역시 모라비안 선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던 때가 1700년대였는데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20년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가 종교개혁(1517년)이 일어나고 이후 2백년간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 보다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었던 것일까요?



존 허스 (John Huss)

모라비안 교회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존 허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허스는 사제로서 당시 카톨릭시대에 특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면죄부가 말씀에 어긋난것에 대하여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급기야 양심선언을 한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양심선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 있고,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평신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타오르는 불속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함께 붙잡힌 후스를 따라던 모라비아 지역의 사람들 역시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가운데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정든곳을 떠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모라비안 교회에

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세계사에도 이름이 잘알려진 '진센돌프'로 인하여 마침내 진센돌프의 영지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모라비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냄받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센돌프를 만나기전까지 모라비안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고자 핍박을 이겨낸 불로 연단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센돌프 (Nicolaus Zinzendorf)

어린시절 부터 외할머니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대학 시절에는 주님을 향하여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한사람 한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친절하게 내 삶을 그들을 위해 드리리라

둘째,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리라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까지 전파하리라.

대학때부터 복음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갔던 진센돌프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후 유럽을 투어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뒤셀도르프의 한 회당에서 특별한 그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를 통해 예수님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흘려 내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런 그였기에 모라비안 사람들의 고통에 자신의 영지를 선뜻 내어주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교회가 설립되고 말씀에 붙잡힌 모라비안 성도들의 불로 연단받은 그 금같은 믿음을 통해 <24시간 기도릴레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1722년 8월) 이후 모라비안 교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근대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탁월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수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성도들과 진센돌프의 귀한 만남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는 선교사로서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귀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역시 보냄받는 선교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단기선교팀과 보내는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원하는 심령의 단기선교중보기도팀과 매주일 정오에 주님께 올려지는 선교중보기도회가 있었음을 교회사를 통해 되짚어 봅니다.

글 | 주은혜 (선교중보기도팀)

2023년 하반기 가정교회 편성안내

"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 JOHN 10:14

마태 평원

조종연 목사
408-568-2266
josephcho@epcsj.org

김흥규 장로 / 김우정 피택장로
목자 김정연, 오경재, 이시현, 이용원, 홍순학

한준수 장로 / 김범진 피택장로
목자 김범진, 김낙은, 김우찬, 김일구, 박희권

위현량 장로
목자 고석진, 김형준, 김희성, 노범준, 신상훈, 정혜경

이태업 장로
목자 이태업, 김재원, 김춘미, 박명옥, 홍장원

장은규 장로
목자 김종윤, 신종훈, 우민, 이상분, 한광선

송옥영 피택장로
목자 송옥영, 김폴, 손진우, 정돈희, 장제나

에녹 평원

이에스더 전도사
408-205-5184
estherlee@epcsj.org
목자 : 김모경, 김육남, 송미숙, 이상필, 이정원, 전연실, 정광록, 최윤자, 최정규, 최정자, 탁은숙

베드로 평원

이에스더 전도사
408-205-5184
estherlee@epcsj.org
목자 김흥규, 이기수, 임승래, 한케렌

누가 평원

이산돌 목사
408-402-1237
sandolee@epcsj.org

백준호 장로 / 강창범 피택장로
목자 강창범, 성승철, JOSH AN, 윤시현, 최송관

박용갑 장로 / 이종상 피택장로
목자 이종상, 고정훈, 김성범, 박용갑, 송규현

박찬우 장로 / 한의상 피택장로
목자 박창현, 박태욱, 윤정희, 오진형, 정성보, 최재항

최철수 장로
목자 김병모, 민형규, 박우정, 양형균, 이택형

김종필 피택장로
목자 김종필, 김웅, 송오빈, 이준호

마가 평원

박기한 목사
415-450-5824
khanpark@epcsj.org

민경진 장로
목자 민경진, 김현배, 안성현, 이구진, 홍성민

김부웅 장로 / 김제찬 피택장로
목자 김영철, 안지철, 우병기, 최성규, 최인화, 최윤희, 한민호

김현준 장로
목자 김규동, 김태형, 심도준, 이윤영, 최동명

박준희 장로
목자 서윤원, 이수지, 이정석, 정우철, 황경석

정규화 장로
목자 정규화, 고영준, 백원중, 여환승, 이승덕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나의 목적

The first time I learned about the word "purpose" was in 7th grade through my middle school choir instructor. He had found his calling through teaching and wanted to share that joy with his students by teaching us the value of leadership, teamwork, and ,most importantly, service. At the time, the idea of having a "purpose" was just a philosophical idea that went over my head like many others.

Later, however, this idea would lead me to visit a country called Niger,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n average life expectancy of about 55 years. After missionary Eileen had given her testimony at our church, I felt inspired to experience the inner workings of a school that was built with the purpose of giving young girls in Niger an education and opportunity to connect with Christ. My mother has been linking children's stories with the Bible for 14 years. I have always been passionate about

art, so we felt called to share our gifts at Grace Academy.

What touched me the most during this trip was connecting with the girls in Grace Academy. I quickly learned that they are an incredibly enthusiastic, humble, and hardworking group of people. By conversing with them, I could see how much joy they had for God, each other, and life itself. Even though they appear carefree, however, many of them are deeply affected by tragic pasts. Among those who apply to the school, only families most greatly affected by financial hardship and difficult living conditions are admitted.

Through this trip, God showed me how much of a sinner I am. Even though I come from an extremely privileged background, I rarely show gratitude for the life that He has given me. Instead, I am constantly distracted by the noise of expectations, grades, and insecurities, complaining about all the flaws I see in myself and my life.

On the second to last day of our trip, my mom read the students a biography about Louis Braille, a man whose visual impairment led to him inventing braille. Before he died, he said his last words, "My mission on Earth is completed." Everyone has a mission and purpose in life in Christ regardless of who they are, what situation they are in, and what their capabilities are. I am grateful to God for allowing me to witness the work he is doing through missionary Eileen and the incredible staff an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tart discovering my mission and purpose in life in Him by teaching art to Grace Academy students and being able to connect with them on a personal and spiritual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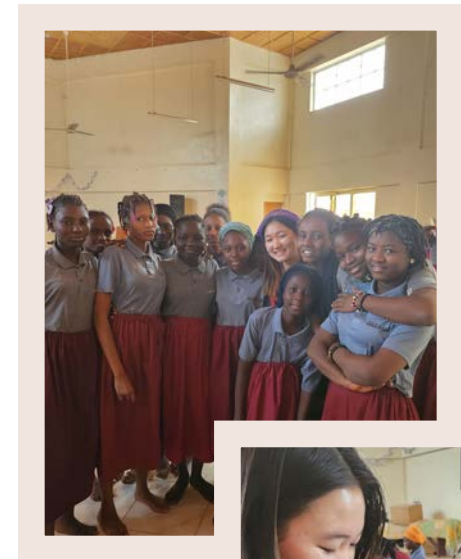
목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7학년 때 중학교 합창단 선생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가르침을 통해 소명을 찾았고, 우리에게 leadership, teamwork,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학생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적"을 갖는다는 생각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내 머리를 스치는 철학적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생각은, 평균 기대 수명이 약 55세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니제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림 선교사님의 간증을 저희교회 youth 예배에서 들은 후, 저는 니제르에 어린 소녀들의 교육과 예수님과 만남을 위해 지어진 학교에서, 내부 활동을 경험하고 싶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4년 동안 동화와 성경을 연결시켜 왔고, 저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Grace Academy에서 저희의 재능을 나누는 것에 대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Grace Academy의 여학생들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겸손하며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그리고 삶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해 보이지만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 경제적 어려움과 어려운 생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특혜받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제게 주신 삶에 대해 좀처럼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대, 성적, 불안 등 제 삶에서 보이는 결점에만 정신이 몰려 불평했습니다. 여행 마치고 하루 전날 저희 어머니는 학생

들에게 시각 장애로 인해 점자를 발명한 Louis Braille에 대한 전기를 읽어 주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혜림 선교사님과 staff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Grace Academy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시길 통해 그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저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글 | 민채영 (Youth)



Laos Mission

When we first arrived in Laos, I felt a little nervous to be in Laos because before the mission I knew almost nothing about the country, and the environment felt very unfamiliar to me. Before this trip, I held concerns that I would not be able to communicate or bond well with any of the Gain Glory School members. I also spent lots of time trying to adjust my plans for science class because I was afraid that kids would find the topics very boring and that they would not participate at all in the activities. I was unsure how much English the kids would understand or whether they would think my activities were too easy for them, so I was very doubtful. However, I feel like our prayers were answered, because during the trip the Lord helped my worries slowly melt away.

The kids at the school were some of the kindest I have ever seen. I have worked as small-group teachers and counselors for summer kids programs many times, and the kids were so generous and kind to each other I was very impressed. After my classes, some kids even brought cleaning supplies and helped me to clean up the classroom even though it was their break time. During science activity, the kids were very patient while I was giving out materials, and they also offered to help pass out materials. While I was teaching, the kids stayed quiet when I asked them to. The kids also grouped together and shared with each other without any problems. I knew just by watching the kids work and play that the Lord's influence was already



strong in this school. They truly treated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carrying respect for each other almost like one large family. Even though I gave a small testimony to the students about "loving your neighbor as you love God," I think they already knew how to do so, and I thought it was remarkable.

The kids were also very sharp and intelligent when it came to the science/math material. They were able to solve math problems very fast and also learn very fast when we gave them examples. Sometimes I would try and look around to try and

help the students, but they kept telling me they did not need it. During science class, the students were a little quiet at first and they did not seem too interested. However, after the first couple classes, many students started to attend class, and they were constantly asking questions and making comments to me during class, which was letting me know that they were very curious about science and were able to think independently. I do not think they fully understood everything I taught since science concepts may be different in English, and

some groups did not participate in class very much. Still, I was glad to know that the kids were paying attention to the lesson and even completing the worksheets I gave them. This gave me hope that the Lord was at work, blessing these students with wisdom and curiosity to truly do well in this world.

Although our time in Laos was very short, I feel that I made some very strong connections with the kids and staff there, and by the end of the mission I was even a little sad to leave the country. I began to recognize that even thoug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re considered to be more "developed" than Laos, the Lord definitely walked among the Laotians and blessed them with love and wisdom that many even in the States do not have. Still, I see an opportunity to help the kids of Gain Glory School achieve their goals in the future and recognize Jesus as the one true Lord in their lives.

글 | Joshua Kim (Youth)



**" THEY TRULY
TREATED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



이스라엘 비전트립 간증문

사실을 말하자면 그곳에 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나에게 이스라엘이란 구약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환난가운데 허덕이고, 지금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며 부를 축적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는 죽음의 미사일로 땅을 빼앗는 그런 나라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유대민족을 장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보내신 곳이라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선교지라면 눈을 빛내며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나의 남편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명형주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야할 것 같다며 비전트립에 사인업을 하고 왔다. 아, 그렇군요. 잘 다녀와요. 나는 여름학기를 들으며 집에서 방학을 지내고 있는 딸래미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요. 하지만,

늘 그렇듯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서 어느새 나는 그분의 확실하신 이끄심으로 어쩔수 없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이스라엘팀이었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지 못하여 모두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숨만 쉬어도 사람을 지치게 했다. 처음 3-4일간, 내 마음 조차도 열갈래로 갈려진 이 비전트립을 하나님이 어찌시려나 걱정스럽기만 했다.

그러던 중, 팀장님께서 보내신 코로나 양성반응이라는 카톡에 나의 강박하고 안일한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내 기도가 부족했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로 무장되어 돌아가셔야 하는



비전트립을 마치 내 개인의 여행인양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던 내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셨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것을 또 잊고 있었음에 회개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많은 걱정들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이었고, 팀원들 한분 한분 너무도 담대하게 불평 한마디 없이 받아 들이시고, 아무일 없는 듯 더 열심히 하나되어 비전트립을 이어가셨다. 교회는, 부족한 목사나 한두명의 리더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협력하여 성화되어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너무나 확실히 알게하셨다.

명선교사님은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싶으신 마음에 정말 많은 땅을 밟게 해주셨고, 내가 얼마나 안일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 속한자들과 다를바 하나 없고, 오히려 신앙의 껍데기로 교묘하게 포장되었을 뿐 더 지독한 기복 신앙이었음을 이스라엘 밟는 땅마다 나에게 큰소리로 가르쳐 주고 있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기도에 대한 열심은, 그것이 비록 율법과 관습에 따른 것이라 해도 나의 허접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일말의 존경심마저 들었다.

명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다른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사역을 보고 들으며, 가난과 먼지와 눈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선명히 보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흔적위에 쌓여 올려진 금칠 은칠로 범벅된 기념 교회들에는 더이상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편안하게, 사소한 불편함도 용납되지 않는 이곳 산호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명선교사님, 그분을 좌우에서 돕고 계시는 박피디님과 서피디님, 그리고 숫자 파악이 안되는 물고기들과 개 한마리, 고양이 네마리들까지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스라엘 비전트립은 나에게 많은 속제와 은혜를 남겼고, 또한 가족같이 좋은 사람들도 남겨주었다. 함께 했던 우리 모두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기로 소망해 본다.

글 | 성경하 사모



미디어 사역의 새로운 비전

올 가을부터 미디어사역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조력자를 모시고 인사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수복 목사님과 박혜진 전도사님입니다. 세상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직 하게 된 두분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두분께 주신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임마누엘에서 사역하신 기간과 어느부서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이수복 목사님 -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것은 2008년 선교위원회 해외선교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5년째 계속하고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역봉사위원회 사역을 함께 하게되었고, 2023년9월부터 예배위원회 미디어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박혜진 전도사님 - 저는 미디어 부 담당 사역자입니다. 미디어팀 중에서 특별히 영상과 비디오를 함께 하고 있고 SNS 홍보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Q 어떻게 목사님/전도사님이 되셨는지,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이수복 목사님 -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중 2009년도에 아내의 암투병과 직장외문 제 등 고난과 시련이 함께 이중삼중으로 닥쳤을때,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구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남은 나의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굳은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정을 회개하게 하시고,진정한 신앙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그때에 성경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 직접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되었습니다.

그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12:1)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런일로 인하여,하나님의 인도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깊이 더넓게 알아보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게되었고, 지금까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있습니다.

박혜진 전도사님 - 저는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마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렸을때 저희 가족과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지만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가신 고모께서 전도를 하셔서 저희 온가족과 사촌은 지금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성서 유치원을 한국에서 다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것은 11살에 집에 있던 성경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을때 었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교회나 가지 않던 때입니다. 그때 문득 들어 읽은 성경 이야기책

에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는데 8복을 읽으면서 알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퍼들었던 성경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일입니다. 그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접했을때 제 마음에 빛이 임하고 큰 위로가 임하여 기쁨을 멈출수가 없었고 엄마에게 신기하다며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몇년후 서울로 다시 오게 되어 저희 가족은 모두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충기 목사님의 뜨거운 신앙과 수련회 생활 그리고 대학부에서의 미션 여행과 찬양활동등 어린시절의 신앙의 경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예고를 거쳐 Design을 공부하고 미국에서는 Film 공부를 하였기에 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만들어 영광을 돌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일에 바쁘고 성공하고 싶은 제 열망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셨습니다. 어느날 Film School에서 4학년 때 1년 공부를 남겨두고 더이상 Loan이 나오지 않았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와 더불어 자녀의 어려움 등 한꺼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심각하게 주님과 대면하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하는것 마다 막히는것 같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보살피면 나는 너의 집을 보살피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서 대학부를 찬양으로 섬기며 선교여행 갔던 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선교 여행 가서 처소교회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한국에 강남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 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정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전했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면서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던 신앙생활을 멈추고 이제 그만 교회 즉 나의 집을 섬기지 않겠나라며 하나님이 저에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대학부 시절에 교회를 내집처럼 드나들면서 헌신하며 섬기



던 시절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만 끝나면, 어느정도 성공하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였던것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되면서 모든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공부하는 도중 전도사 일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며 또 성경에 빠지고 아이들 찬양에 빠져 제가 예전 한국에 있었을때의 그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경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부족한 저를 아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였고 다시 주님의 집을 섬기면서 제 신앙의 초점이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중심이 바뀌면서 제주변을

멤돌던 힘든 문제 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6:33을 제 삶에 이루어 지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다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아이들 사역이 이 혼탁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Awana와 VBS등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코디네이터로 VBS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가 해왔던 미술로 이방 저방을 꾸미며 지체들과 밤을 새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었던 일은 VBS 때 아이들이 와서 뛰놀며 주님을 만나는것을 보고 밤새며 힘들었던 기억은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제 섬김이 보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역으로 길을 여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뒤에서 딱딱한 기계를 만지지만 영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님들 한분한분을 사랑하고 섬기길 기대해 봅니다

Q 앞으로의 사역 방향은 어떠신지요?

A 이수복 목사님 - 앞으로의 사역은 지역봉사위원회의 여러사역들에 현장에 참여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년동안 해온 해외선교일에도 계속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예배위원회의 미디어사역을 새로 담당하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분야이니 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진 전도사님 - 유튜브의 질을 더 향상 시키고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팀의 단합과 미디어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연합된 기도를 통해 미디어팀들이 실족하지 않고 격려를 받을수 있게 하는것이 하나의 목표이고요 또 미디어 팀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팀원들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destiny를 찾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대학 부 시절에 교회를 내집처럼 드나들면서 헌신하며 섬기 던 시절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SNS 의 홍보 특히 Instagram의 활성화 short video를 통해 성도님들이 가볍게 우리교회 영상을 보시고 또 updated news등을 쉽게 접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팀을 구축하고 또 재능있으시고 또 편집에 관심있으신분들을 트레인하여 자기 계발을 하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전을 팀원들에게 고무 시키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기도가 이루어 지고 또 연합하고 비전이 이루어 지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Q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이수복 목사님 -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신앙가족입니다. 지난 15년간 함께 동고동락 해온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영원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한점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전도사님 - 아름다운 연합고 봉사 헌신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저를 감동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우 두달있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점心和 음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절로 느끼게 해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탕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이곳 미디어 팀에 왔을때 팀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지켜있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보이지 않게 봉사하지만 조

그마한 실수도 도마위에 올려지고 비판이 되는 자리입니다. 미디어 팀 한분한분께 칭찬의 말씀 한마디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소통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희도 귀를 열어 듣기 원하고 또 그런 자리도 마련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뒤에서 또 구석에서 어쩌면 찬양할때 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기계에 집중해야만 하는 저희들이기에 보이지 않고 숨어서 헌신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미소와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 힘이 나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모두 정말 프로답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멋있게 만들어 드리는 귀한 미디어 팀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correction도 잘 받아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리 | 김연희 (편집부)
사진 | 윤영숙 (편집부)

세례를 받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같은 죄인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넉넉치 않은 가정환경 속에 살면서 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자가 되고자 돈을 쫓아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온갖 일들을 안해본 것 없이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어릴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저는 성당을 다녔고 하나님은 막연히 하늘에 계신, 내가 아쉬울때나 기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뜻대로 무조건 열심히 살다가, 18년전 기회의 땅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오게 되었고, 10년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팔로알토에서 스시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저는 부활절, 크리스마스때만 찾아가는 성당이었고, 여전히 아쉬울때만 하나님을 찾는 가짜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팬데믹으로 9년간 운영했던 레스토랑을 문닫게 되었고, 그로인해 아내는 얼굴이 심하게 마비되었고, 그때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얼굴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2년전,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혼자 나가던 목장에서 음식을 해야한다며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목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걸 시작으로 목장을 매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성경 이야기에 부담도 되고 불편했지만, 목자님과 목원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어 이제는 성경일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책이란 걸 읽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궁금하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목장 안에서 얘기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점점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마지못해 가던 주일 예배도 처음엔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 가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매주 참석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듣기 싫었던 찬양과 말씀들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평소에 자주 쓰던 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처음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관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저 먼 곳에 있던 주님은 제 안에 아주 깊숙히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키우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도 누군가 치우지 않은 강아지 응가를 보면서 늘 욕하던 제가 이제는 그 응가를 대신 치우게 되고, 그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과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해야하는지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오고가는 길에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고, 파란 하늘과 길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길을 지나는 날 위해, "내가 널 보고있다" 하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끝까지 읽은 책이 성경이고, 이 말씀들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고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제 뜻대로 세상 상식으로 돈 많이 벌고 살면 잘사는 인생인 줄 알았던 제가,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 부르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글 | 신동욱 (네팔 헤토다 목장)



내 인생의 주인

저는 20년 전 딸들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바쁜 일상이운데 하루 하루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어떻게든 잘 살고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 교회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회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의리없는 관계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실망스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성장했고, 저도 그럭저럭 적응하며 미국 생활에 길들여졌습니다. 가끔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교회에 가면 다시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 같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저의 모습이 그려져서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VIP 초청잔치 때 친구의 인도와 권면으로 임마누엘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로부터 교회에 가보자는 권면을 간혹 받고 있었고 늘 거절했었지만, 이번엔 왠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

니다. VIP 초청잔치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VIP'라고 저를 칭하는 것도 어쩐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VIP호칭은 교회안에서 쓰이는 것과 다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VIP로 생각하며 불러주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주일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성경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재밋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며 또 말씀이 기다려져서 다시 교회가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수요일 에녹평원 예배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평원의 수요일예배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예전에 손을 놓았던 여러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주 한주 예배 참석만 하던 저에게 7월쯤, 이예스터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 주시며 세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례 받으시라고 권유 받던 그때까지도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다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8월 예수영접 모임에 가니 더 깊은 믿음과 세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결혼과도 같다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 세례가 확신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깊숙히 묵상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글 | 윤경순 (에녹 평원)
정리 | 차연주 (편집부)



Mother-Wise

[지혜] 를 마치며

저는 작년 5월 말, 미네소타에서 산호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아직 아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목녀님과 몇몇 자매분들이 화요 여성 예배에 가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셔서 봄학기 2주 차부터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배에 왔을 때 어떤 소그룹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질 때 여러 자매님들이 오셔서 마더와이즈를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좋으신 권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원래는 마더와이즈반이 선착순이라서 금방 마감이 되는데 이번에 운 좋게 딱 한자리가 남았으니 얼른 신청하면 좋겠다' 하시며 귀가 솔깃하게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침 선물 받은 마더와이즈 교재가 있었기에 흔쾌히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아내와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맡은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공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그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 지난 한 주간 공부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 주의 주제에 따라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며 엄마와 아내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 및 인생 선배이신 권사님을 비롯한 다른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지혜와 은혜를 느끼고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주간의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저는 6살과 2살 귀여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지난 6년간 육아생활을 돌아보니, 저는 제 아이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잘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내 수고와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도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나의 탓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며 아이들의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아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주 차 5일 공부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법처럼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공식이다."라는 글귀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또 제가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며 느낀 다른 한 가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있으면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나아가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유익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사탄의 시험이나 죄의 형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훈련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저이기에 또 무너지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이제 전과는 다른 담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마주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간증을 마치며, 한 학기 동안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은혜롭고 도전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반을 이끌어주시는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하고 공감해 주셔서 제 속마음을 더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고, 권사님의 살아오신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소그룹을 통해 만나게 된 자매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잘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이현진 (빅토리아 목장)



은혜가득한 '생명의 삶'을 마치며

생명의 삶 공부가 1단계라고 해서 쉽고 부담 없이 시작하였는데,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내용들이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마음에서 어수선하게 있었던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고 중요한 내용들을 배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 과의 내용들이 다 마음에 와 닿았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번째, '4과 신앙'에서 알게 된, 성경의 신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말씀을 정확히 옮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고 그 결과로 처음 쓰여진 말씀과 지금의 성경이 99.5% 이상의 일치도를 가진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현재에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는 '6과의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지만 공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근거한다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사람의 감정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전에 아는 분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해 오신 분인데, 요즘 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며 자신 같은 죄인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며 너무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이 있나 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뭐~그러기야 하겠어요' 이렇게 어정쩡하고 전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더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확신 없는 그분의 모습에, 나까지 그분의 구원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6과를 배우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분을 만나 배운 것을 말씀드렸고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했습니다.

세번째는 '7과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기도'입니다. 조별 나눔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나는 유난히 기도가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잠깐 기도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단지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짧게 간구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기도가 믿는 자들의 호흡과 같아야 한다는데, 나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7과를 배우며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찬양, 감사, 자백(회개), 중보, 간구의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찬양, 감사, 중보가 빠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을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기도에서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하며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의지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며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기도의 시간이 좀 늘었고 기도가 전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나의 기도생활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네번째는 '9과 성경'과 '14과 교회생활'에서 배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입니다. 9장에서 성경을 분류하자면 지침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실천을 위해 쓰여진 책이란 것입니다. 즉 성경은 철학책과 다르게 삶의 변화를 이끄는 책이란 것입니다. 모호한 철학적인 내용이 아닌 확실하게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14장에서 배운 성경의 '처방(prescription)'의 특성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저는 참 많습니다.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묘사(description)'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용보다는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되는데도, 계속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했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번째는 요한복음 읽기입니다. 대학 때 성경을 처음 접하고 그룹으로 하는 요한복음 성경공부에 참석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성경이란 책도 처음 읽어 본지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인공구에서 요한복음을 참고하였고, 주일예배에서 요한복음 설교를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의 숙제로 요한복음을 나름 정독을 해보니 내용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겠지만 요한복음의 내용은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도 놀라운 비밀을 너무 많이 간직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때 지식으로도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에 비해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정독하여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섯번째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배운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성령의 은사가 '특별함'보다는 '평범'에 가까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므로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발견을 한다고 해도 헌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 삶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별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며 평범함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일원으로 맞아주시길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마지막으로 조별 나눔입니다. 좋았던 부분은 다른 분들의 깊이 있는 묵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솔직하게 삶을 나눠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도전이 되기도 했고 또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나누는 것이라 친근감이 확실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나눴다면 얼마나 더 많이 친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삶을 수강한 소감을 정리하자면 너무도 유익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영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결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다음에 한번 더 생명의 삶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 내심 기쁩니다. 이번 성경공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이어 가길 다짐합니다. 평생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글 | 장지나 (구자라트 목장)



다시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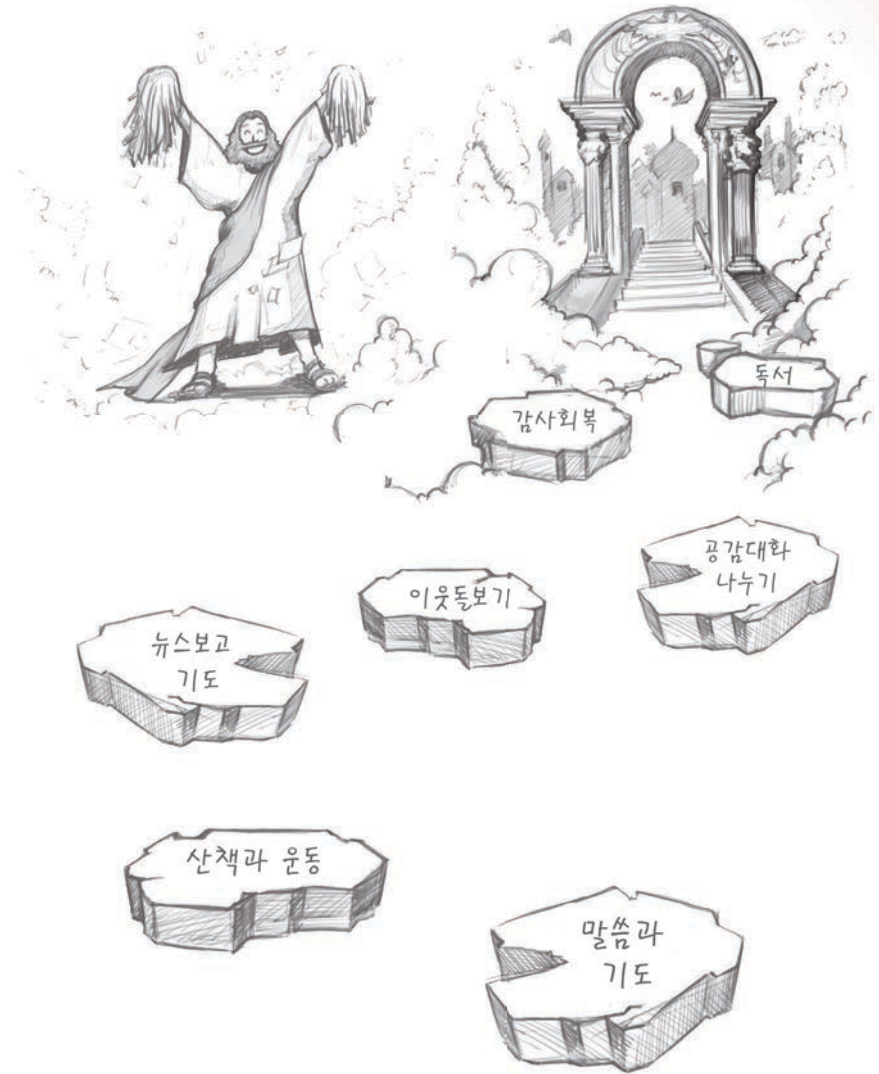
가정교회의 비전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고
경주하는 출발선에
서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우리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불러봅시다'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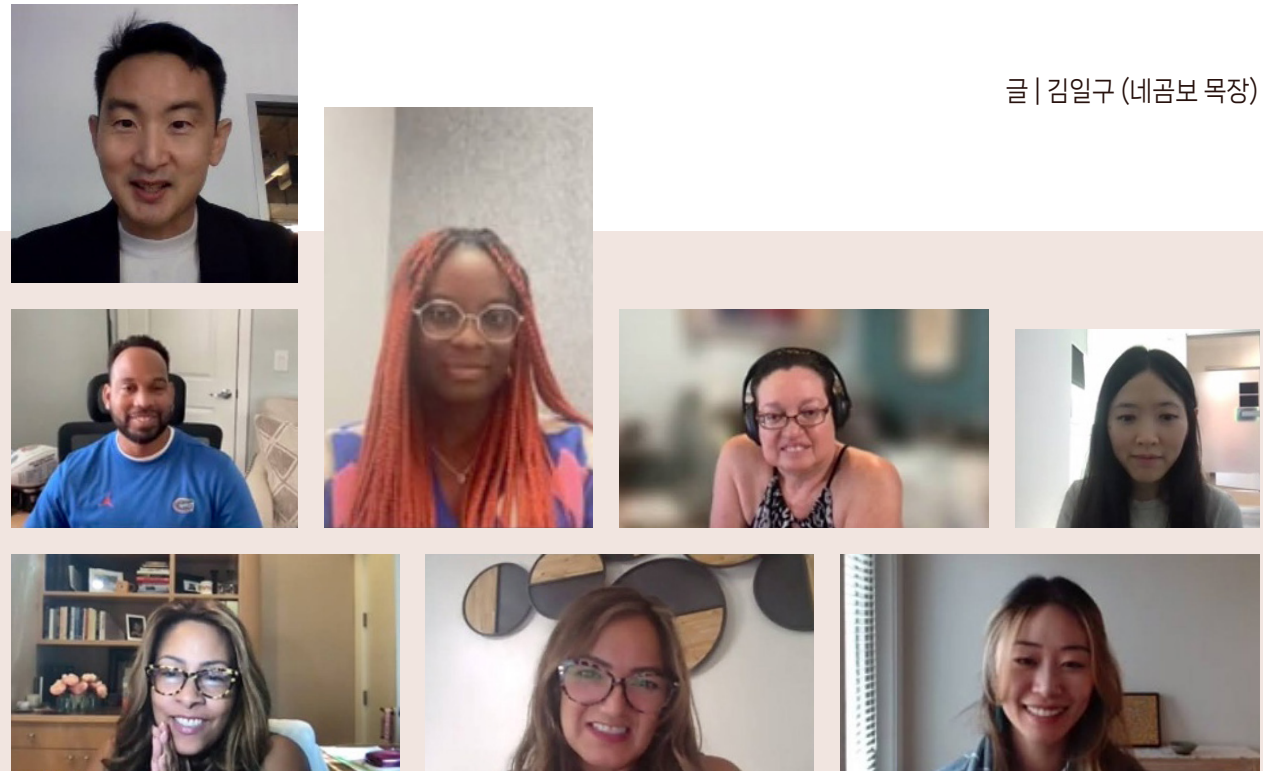
2022년 2월20일 '마음과 몸과 영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실리콘 벨리의 회사에서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 중심의 환경 속에서, 비신자가 많고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냈던 모든 회사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는 이들을 찾을 수 있었고 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메타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기도모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나눕니다. 1400명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모임에는 10~20명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모임이 회사 내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독교 모임 내에서도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다종교 운동 같은 성경적이지 않은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 김일구 (네콤보 목장)

오로지 십자가 사랑 앞에서

2002년 '여정'이라는 CCM 앨범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16일 발매된 '길'까지 총 7장의 정규 앨범과 1장의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고 100여장의 다양한 앨범에 피쳐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인천평강교회 협동목사(찬양사역)이며, 국제NGO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11곡이 올려졌으며 함께 방문한 막내딸과 함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강찬 사역자는 여러 교회를 돕는 순회 사역자로 본인을 소개하며 일상 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팀은 인터뷰를 통해 목사님의 찬양 사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임마누엘 공동체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신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A 먼저 박성호 목사님과 서면 인사를 통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꼈는데 직접 방문하니 교회도 성도님들도 온화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보수적이고 대부분 경직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따뜻하지만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방문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이 뜨거워지며 임마누엘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는 교회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이번 미주 방문은 어떻게 계획되셨는지요?

A 팬데믹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020년 산호세와 LA 지역의 순회 사역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 교회를 몰랐었고 산호세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때 섬기지 못했던 집회를 섬기는 일정 가운데 임마누엘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집회 곡들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었나요?

A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하며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와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그리고 나눴던 말씀 중 히브리서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는 제 인생과 곡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회의 핵심은 '복음' 인데요.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찬양을 올리고 마음을 여는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Q 찬양곡 중에 '지푸라기'라는 곡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취소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암 때문에 치료차 한국에 나오셨는데 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시다면서, 목사인 저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 분 한분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고 싶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기 쉽지 않았지요. 집회 이 후 투병중이셨던 집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는 기적이 일어났구요. 그 소식

을 들은지 얼마 안된 시점에 여행스케치 리더 조병석 집사님으로부터 '지푸라기'라는 곡을 불러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곡의 사연을 들어보니 암환자의 사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암환자들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찬양으로 위로하라는 뜻처럼 여겨져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녹음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울컥울컥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에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이 찬양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진 곡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었을까요?

A (주저없이) 임마누엘 교회요. (웃음) 사실 모든 집회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 3000번이 넘는 집회를 하면서 한번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다면, 이번 방문때 2살부터 6살 어린이만을 위한 집회를 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살롬 크리스찬 아카데미 라는 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는데 대상이 2살부터 6살이라고 해서 가능할까 생각하며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눈을 마주하며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Q 목사님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온 성도와 기쁘게 찬양을 드리기를 바라며 찬양팀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각자의 삶은 그렇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고단한 삶의 순간들이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하면 기쁨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지요?

A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 올리는 분마다 성격이 다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낙심되거나 힘든 일

이 있을 경우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잊어버리고 어떨 경우에는 어리버리하기까지 한데요. 이런 제 연합이 찬양사역자로서는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요.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기쁘게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찬양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구요. 그리고 예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해주세요.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게해주세요.' 라고요.

Q 임마누엘 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큰 교회더라고요. 세상은 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내부적으로 그 선하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걸어다니는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분 한분이 삶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각자의 퍼즐을 임마누엘이라는 큰 그림으로 완성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 : 김유진, 김희도, 정용익 (찬양팀)





김송희

- 상** 상추쌈 하면서
- 속** 속상한마음 달래네
- 자** 자제하지 못한 내 행동을 회개하면서



김인영

- 보** 보고 또 봐도
- 내** 내마음을
- 심** 심쿵하게 하는 예수님



박수진

- 상** 상상만 해도 기대되고
- 속** 속속들이 알아가니 더욱 좋은
- 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차홍기

- 상**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속** 속사람을 강건케하시는 성령님
- 자**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주은혜

- 상**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때
- 속** 속상해 하지 마세요
- 자**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상속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묵상하며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홍선희

- 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 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심**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자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하나되는 프로그램 'YOUTH CONNECT'

지난 8월 프레즈노와 9월 임마누엘 교회에서 개설된 Youth Connect 를 통해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가 하나되는 귀한 은혜의 순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Youth Connect 개설과 진행을 담당하신 가정사역부 이종협 집사님을 만나 Youth Connect 사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Youth Connect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Youth Connect 프로그램은, 7 - 12학년 Youth 자녀 중 한 명과 부모님 중 한 명이 토요일 오후 5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Youth Connect 프로그램은, 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청소년들과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부터 개설한 "청소년 감동캠프"를 우리 미국

실정에 맞게 미주화 한 프로그램이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는 2018년 부터 4회에 걸쳐 총 77 가정이 수료하였습니다.

Q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개설한 Youth Connect 프로그램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A Youth Connect 프로그램 중에 부모님들과 Youth 자녀들이 따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강사와 자녀강사를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을 모시고 진행 하였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자녀 강사를 외부에서 모셨습니다. Seattle 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시며 한때 시애틀 형제교회 Youth Pastor 로 계셨던 Pastor John Joo 를 모시고 진행 하였는데, 청소년 자녀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어 올해에도 이 Youth Connect 프로그램을 선교지인 Fresno 에서 우리

교회 단기선교팀과 함께 현지 몽족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Q 올해 Youth Connect 를 개설하시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A 올해 프레즈노에서 개설한 Youth Connect 에서, Youth Connect 역사상 가장 고령의 Youth 참가자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37세의 몽족 여성분께서 Youth Connect 홍보 전단을 보시고 자신이 너무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선교지 특성상 그 분과 70세가 넘으신 그 분의 아버님의 등록을 받게 되었고, 그분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Youth Connect 프로그램 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글을 써 주는 시간이 있는데, 글을 쓰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두분 계셔서 자녀들에게 쓰는 글을 영상 으로 대신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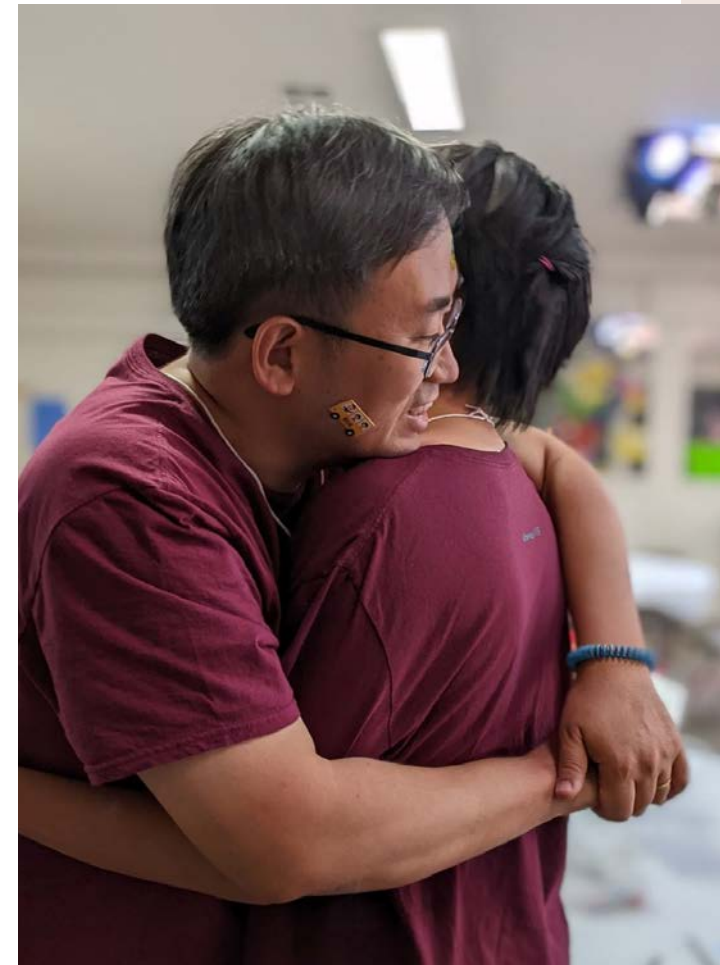
9월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Youth Connect 를 개설 한 후에는, 여러 부모님들께서 귀한 메시지를 Youth Connect 팀에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자녀분과 많은 진솔한 대화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하신 부모님이 계셨고, 프로그램 참여 후에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많은 행사에 무반응이었던 자녀의 입에서 이 행사가 참 좋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 행사를 위해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떠올랐다고 말씀하신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Q 앞으로 Youth Connect 프로그램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2017년에 처음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미주화와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우리교회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산호세 지역의 이

웃 교회, 뉴욕, 뉴저지, 그리고 프레즈노 등 현재까지 미주에서만 총 12회 Youth Connect를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가정사역부 내에 Youth Connect 팀을 새로 신설하여, 우리교회 뿐 아니라 여러 선교지와 이웃교회를 대상으로 outreach로 섬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봉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글 | 이종협 (가정사역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비전과 꿈을 가지지 않은 자라면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 장로교회에는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아래 사랑으로 즐거운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는 비전 청년부가 있습니다. 주일 4시경, 장년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간 친교실에서 다음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비전청년부 청년들의 모습이 활기차면서 강건해보였습니다. 이자리에서 형형색색의 달콤한 도넛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소망하는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사, 회장,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2023년 임마누엘 비전청년부의 오늘

약 100여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비전청년부는 현재 20명의 리더쉽과 9개의 목장, 7개의 사역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전체 예배를 드린 후 목장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일예배 '홀리파이어'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관계. 하나님이 이어주신 선물이며 소명 - 목장을 진행하며

비전청년부는 약 70%의 직장인과 30%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장을 구성할 때에는 나이와 성별, 학생과 직장인이 고루 섞이도록하여 한 목장마다 십여명의 청년이 모여 조화로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해결해지지 못하는 목원들의 상황을 접했을 때 목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목원들끼리도 혹은 사역과 나눔을 하면서도 서로 감정이 상하는 상황에 놓일수 있기 때문에 목자로서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하는 부분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목장안에서는 직장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목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부분은 삶을 나누며 공유하고 말씀과 기도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서로가 진실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목장 활동과 교회 사역 등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는 순간이 가장 감사했습

니다. 또한, 목원 한명 한명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목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성숙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보람되었습니다.

회복과 불타오름의 터닝포인트 - 수련회와 선교활동

비전 청년부에서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재미있게 사역을 준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생활의 갭이 클 만도 싶은데, 지체 하나하나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선교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제자매가 청년부에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서 의사소통이 100% 편하지 않은 영어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수련회나 선교활동을 다녀오면서 우리 공동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경우 훈련과정이 길고 한창 사회활동 해야하는 스케줄을 조절해야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비전 청년부에 계획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련회나 선교 활동 이후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어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하나된 모습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뜨려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가끔, 사역과 청년부 활동에 대한 스케일을 확장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있어 교회안에서 반영해보고 싶지만, 아직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훈련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의 올해 목적은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였는데요. 그에 맞게 공동체가 성장하며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2024년도에는 더욱 부흥하는 비전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정리 | 한미송, 김연희 (편집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니라"

- 시편 110편 3절



부목자로 재헌신하기까지...

몇년간 VIP와 선교에 마음을 합하며 모이기에 즐거웠지만 팬데믹 기간 타주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저희 부부는 목자, 부목자를 내려놓고 2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생각한 저의 삶이 오랜시간에 걸쳐 자리잡은 세상의 기준들로 인해 변질되고 흐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따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회개는 그동안 알게 또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여러 날을 눈물로 깊은 회개를 하고 난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감사와 자유는 회복했지만 그럼 '목자와 부목자로서의 재헌신?' 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재헌신에 대한 여러 번의 사인을 모른척하며 지내고 몇 개월이 지난 올 2월, 직장 상사로부터 이사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야 하는 상황인데 평안함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어졌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다보니 담대함이 생겼고 가족들, 그리고 교체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찬양하기를 권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목소리로 때론 서툰 악기로 둘, 셋이 모일때마다 찬양을 드리니 삶을 나누는 시간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에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미 첫 찬양, 첫 소절부터 뜨거워지는 목회자분들의 목소리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셨다는 연로한 목사님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진심어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듯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두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목장의 가치, 그리고 가정교회로서 빛바래 가는 상황들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던 저를 돌아보게 된 것이었고, 두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소명을 회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목장 예배드리듯이 가정예배의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목장간 자매결연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사역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이 이뤄져도 목회자의 영성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 중요성을 영성에 두신 것이 와닿았습니다. 매일 그리고 오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쌓아 공동체가 가운데 여러 은사들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안개로 덮여있던 시야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 된 마음으로 영성을 쌓는다면 주어진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흔들림에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명쾌한 말씀 후 다시 교회를 바라보니,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섬기며 유기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사람 한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의 노력이 온전히 올려지는 것에 대한 증거로 진심으로 감동하는 목회자분들, 불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도와 연합,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선배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륜이 가득한 권사님들과 주방 초보자매들의 어울림이 아름다웠던 주



방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보너스 같은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식탁에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200인분의 생고기에 손을 얹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절실한 경험은 가정에 연결되어 메뉴 선정에 기도로 준비하고 건강한 식탁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했어도 재헌신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밤, 참석한 모든 목회자분들이 목자, 부목자를 포함한 봉사자들에게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남편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마치 수천명이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교실 지붕이 떠나는 듯한 기도의 울림이 제 마음에 박히더니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섭리에 순복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에 내 삶을 이뤄가시는 그분의 눈길 닿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나눴던 저희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재헌신의 확신을 붙들고 다음날 목자, 부목자님과 함께 분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있기에 힘들어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새로 시작될 목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원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았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분가할 목장에서 새로운 직장에서도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방보경 (이스탄불 목장)

행복한 우리 가족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은입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것이라 생각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했고, 캘리포니아에는 2020년 8월에 이사 왔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의 유학생활을 위해 동부 뉴저지에서 6년을 지냈습니다.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5살 남자아이, 둘째는 3살 여자아이입니다. 신실하고 섬김이 넘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매 주일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사귀었으며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인가부터인가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첫째와 갓난아기 둘째를 홀로 돌보면서 영적 생활을 못하기 시작해서였는지, 아니면 더 이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여름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의 영혼은 굉장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내며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다보니, 저의 한계로 인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지금은 생각나지도 않는) 일로 아이들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화를 내면 안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억지로 화를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속이 썩고있다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많이 났을때는 아이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뛰어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어봤었는데, 그속에 비친 제 얼굴은 눈은 울고, 입은 웃고 있는 참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화를 참기 위해 옷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힘들다 투덜거렸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심을 느꼈고, 그 후부터 한 열흘 정도는 화를 내지않고 지내는 사막의 단비를 경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여전히 사막같은 저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낮에는 화를 참고, 밤에는 반성하는 "실패"의 날들이 계속되는 괴로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폭풍같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와서 첫째는 킨더에 들어갔고, 둘째와 단둘이 있는 오전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요여성모임이 개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화요여성모임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둘째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냥 앉아만 있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아이도 맡아주신다는 이야기를 같은 목원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목자님께서 커피브레이크를 추천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아, 커피마시며 친교하는 그룹인가보다 생각하며



편한 마음으로 소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커피브레이크는 성경공부모임 이름이고 성경을 함께 읽으며, 질문하고 답해보는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커피브레이크 가을학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며 질문해 보았고 화요여성모임 방향중에도 쉬지 않고 만나며 야고보서를 읽으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번 더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커피브레이크 숙제를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작은 변화는 제 안의 성령께서 다시 일하시며 영혼이 다시 숨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생활과 예배의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봄이 왔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봄학기 화요여성모임에 또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커피브레이크는 느헤미야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고, 행동하는 아주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페르시아 고위간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 여겼기에 그 자리가 자신의 전부인양 붙들고 애쓰는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왕에게 성벽재건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길 요청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귀한 자리라 여기며 아이들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해봅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도 느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것을 봅니다. 성벽재건중에 있는 온갖 외적 방해, 회개했는데도 또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느헤미야를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영혼을 지키는 성벽을 높게 쌓는 것이라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성벽은 너무 다 허물어졌었기에 아주 작은 침입에도 불같이 화가났던 것이고, 더 무너져내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기로 결단해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아주 즐거운 일이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일이지만 때때로 외부의 공격때문에 또다시 부서지는 일이 생기겠죠. 내가 쌓아가는 성벽이 사실은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 다시 황폐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와도 기도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화요여성모임을통해 예배와 말씀읽기가 제 삶에 다시 자리잡게됨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산돌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열려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이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때를 그렷습니다. 이상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조은 (치앙마이 목장)



세례식 / 임직식

목자 부목자 수련회 여름 성경 학교 (VBS)





찬양팀 수련회
자선음악회
예능 성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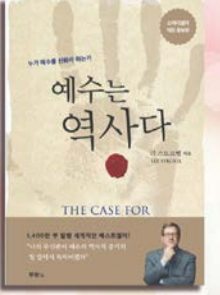


담임목사 추천도서



한 길 가는 순례자
유진 피터슨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 가는 순례자의 영성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보벨

역사적 예수와 마주하다



성막의 세계
김경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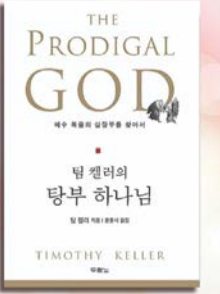
히브리 원문에 입각해 철저히 탐구하여 재구성한 성막 책



산비
에일린 크로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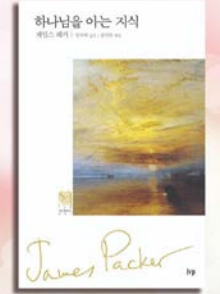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영국 선교사 제임스 O. 프레이저의 전기

신간도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TIMOTHY KELLER

탕자의 비유로 본질적 복음의 핵심을 짚어 낸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이로움과 영광, 기쁨




작은 땅의 야수들
김주혜

대한민국의 독립 투쟁과 그 격동의 세월 속에 휘말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민의 답답답
조정민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당신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지에 관한 탁월한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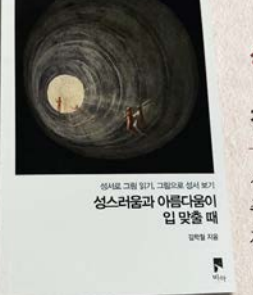
교회, 가정에서 시작하다
래드 지데로

가정교회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역사적 조망, 그리고 개인적 경험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조정민

창세기 돋보기 2-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김학철

성서화의 신학적 해석에 주목, 그를 통한 성서 본문의 재조명




뿌리 깊은 영성
강준민

영적 훈련과 성장, 열매 맺는 영혼 관리에 관한 탁월한 안내서



일터신앙
이효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과 소명 그리고 삶의 이야기



탈기독교시대 전도
팀 켈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답하기 위해 교회를 새롭게 보고 현시대를 복음으로 분석



잘 산다는 것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의 미술관 원고, 당신의 평범한 삶에 깃든 비범함을 발견하십시오!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박용갑

[기획] 방보경

[편집] 한미송 장은영 김연희 차연주

[사진] 김홍대 윤영숙 백종현

[디자인] Sandra Lee 한혁 백승연

[기도] 임희정 이은하 조순란

[객원기자] 김범진, 김은경B, 맹은희, 정용익, 한미희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